

기고

아이돌봄, 복지를 넘어 일자리로  
담양의 선도적 실험

담양군은 8월부터 '조부모·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손자녀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이하야 합니다. 조부모는 만80세 이하로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직 전국 어디서나 시행되는 보편 제도는 아니지만, 담양군이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최초 제안자로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아이돌봄 방안을 제안하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해 '정식 일자리'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이는 손주를 맡기는 자녀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에게는 보람과 경제적 도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소득별 차등 지원 방식 대신, 유형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세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이돌봄 교사 양성 필요성까지 지적하며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부터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가정이 '현재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지를 앞둔 부모가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은 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이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담양군의회 부의장 박은서 의원

평화. 누구나 향유하고 싶은 로망이다. 국어사전에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성서(요한복음14장 27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하튼 성서에서도 평화를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도 표현법만 다르지 그 기저에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좋은 평화가 그득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혹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행복도 스며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노력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한낱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는가. 왜 그럴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재능이나 취향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재능이나 취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스스럼없이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아름다운 화원으로 피어날 그날을 향해

이 가는 곳이 바로 그것일 수 있다.

그렇다. 마음이 가는 곳에 자신의 삶을 키워갈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잘 기르면서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에는 조건이 있다. '간절함' 말이다. 그 힘이 클수록 그만큼의 힘이 작동되어 소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바라는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고 그것이 곧 마음의 분열을 가져온다. 이로 인해 평화도, 행복도 자신의 곁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순간적으로

는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다가도 곧 주변 환경 속에 함몰되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교'라는 악마의 뒷에 걸려버린다. 때문에 자신보다는 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즉, 매사를 남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머무를 수 없다. 비교하는 삶은 언제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욕망덩어리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특히 내적 환경 말이다. 내적 환경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함양하는 것을 말

한다. 자신이 서있는 곳을 세상의 중심축이 되도록. 그래야 그곳이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환하게 밝혀줄 빛 말이다. 그 빛이 주변을 밝혀주면서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러다보면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고 행복 또한 마음껏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삶이지 않을까. 이런 세상에는 고통이 스며들 공간이 없을 것이다. 우주의 모든 긍정적 에너지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질병 또한 스며들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항체가 생겨서 방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이 바로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비록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세상의 중심축으로 삼으면 바로 이 같은 삶을 향유할 수 있다. 만면에 함박웃음이 피어나는 행복한 삶 말이다. 그렇게 모두들 행복의 양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진정한 아름다운 화원이 될 것이다. 그날을 향해 각자가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보지 않겠는가. 중간에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수첩

조합장 '내로남불' 동곡 농협 '사필귀정'  
직권 남용·일권행위 조합 준폐 위기?



김준형  
기동취재본부장

광주 광산구 동곡 농협(조합장 이동운)의 위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동곡 농협은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2010년부터 동곡동 주민 복지회 건물의 1층 전체를 임대하여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2월부터 7월 25일까지 6개월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체불하였다.

임대료 체불이 지속되면서 동곡동 주민 복지회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6월 1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하나로마트와 농협이 재입대를 해준 식당 등 생활 편의 시설까지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동곡 농협이 임대료를 체불한 이유는 2013년부터 지급한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여 달라는 요청이었지만, 12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주민들과 조합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 동곡동 주민 복지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동곡 농협의 위법적인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를 진행하겠다고 20년 1월과 21년 10월 2차례에 걸쳐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법적인 결정을 한 사실로, 이사회 승인을 무시하고 매입한 토지를 감정평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한 후에 이사회 사후승인을 받았으며, 토지계약 후 감정평가서와 공인중개사 의견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하였지만 제출한 공인중개사 의견서는 농협에서 출력한 문서에 남는 워터마크(배\*주)까지 찍혀있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이 있었다.

여기에 토지 계약서 2부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토지매입에 관련된 임원들과 함께 당시에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농협 자체 감사를 포기한 감사도 이 문제로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매입한 토지에 로컬푸드 판매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절차를 밟아 개발행위 허가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1차 토지 매입 후 개발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또 추가로 매입한 과정들도 의문이다.

이동운 조합장은 농협과 관련 공개적인 자리에서 로컬푸드 허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 왔으나, 취재 결과 20년 1월 토지를 매입한 이후 24년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광산구청에 공식적인 로컬푸드 행정허가 요청에 관한 서류접수

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동운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안건을 통과시켜 토지를 매입했지만, 정작 행정기관에는 '벼 재배용 시범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지취득 허가를 받은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농협 조합원과 관련 공공기관을 기망하는 부분이다.

또한 벼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 13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한 결정을 봐도 동곡 농협의 경영상태를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24년 동곡 농협의 조합원 납입 출자금 은 46억, 당기순이익은 2억 3천만 원 정도였고, 당시 농협 자산을 보더라도 과도한 금액을 투자할 만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거액을 지출한 상황이 납득이 안되며, 벼 시험재배용 토지는 소액의 임대료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감정평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 자체가 경영방식과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입한 후 시범 포용으로 관리를 하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로컬푸드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동곡 농협의 여건상 조합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로컬푸드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관을 통해 필요자금과 자금조달 방법, 자금 운용 계획과 로컬푸드 운영 시스템 구축 방법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과정들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요약하면, 동곡농협의 로컬푸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절차차·법적 문제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준비도 미흡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경영 악화와 임대료 체불 문제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곡농협 일부 조합원과 이·감사들은 농협 현실에 관련하여 "로컬푸드 부지매입·군산 모 기업 대출조사·하나로마트 임대차 계약위반 등을 논의하였고, 이를 9월 농협 이사회 안건상정" 하기로 하였다 한다.

한편 동곡 농협 이동운조합장과 임원들은 본 언론사 및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는 가운데, 농협의 특별감사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스런 목소리가 지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농업협동조합이 비민주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검토까지 진행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동곡 농협의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권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구 관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147/07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